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에 대한 연구

Friendship and Aggressiveness as Determinants of Conflict Outcomes in Middle Childhood

장 화 정**
Jang, Hwa Je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1) the relation of aggressiveness to the outcome of conflict, intentional attribution, predicted response, and (2) friendship as a variable affecting intentional attribution and predicted response. The subjects are 78 fifth grade boys selected from a public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The children were individually tested by the researcher who read the items to the child. Dodge and Somberg's aggression questionnaire and Dodge and Frame's conflict outcome of ambiguously intended stories were modified for use in this study. The instigator of aggression in the stories was classified as friend or non-friend and aggressive nonfriend or nonaggressive non-friend. Two-way analyses of variance involving one between-subjects factor (aggression of subject) and one within-subjects factor (instigator combination) were performed on children's responses to three of the scales (hostile, neutral, positive).

The results show that (1) there were differences in intentional attribution to the children's aggressiveness, regardless of the friendship status of the instigator, and (2) the predicted response to aggressiveness varied with type of instigato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라(Dodge, 1986) 아동들은 또래에게서 행해지는 단서에 대한 해독과정에서 적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거나, 적의성을 띤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또래에게 행해지는 단서에 적의가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짙게 된다. 이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며 다시 또래로부터 반복적인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또다시 또래가 적의를 품고 있다는 원래의 공격기대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예상하는 갈등 행동 결과는 개인적 경험 및 개인차를 포함하는 사회와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공격 행동과 아동의 인지

* 본 논문은 1990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연구조교

적 매개과정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아동의 의도적 귀인과 예견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예, Sancilio, Plumert, 와 Hartup, 1989). Hartup 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 결과는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공격을 당했을 때,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귀인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의 대응반응을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인 귀인과 예견 반응에 대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따라서는 귀인점수에 차이를 발견했지만, 행위자 유형에서는 예견 반응점수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행위자 유형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친구관계와 친구관계가 아닌 상황만을 통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 되고 있다(Sancilio, Plumert, 와 Hartup, 1989). 그러나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Hymel(1986)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좋아하는 또래가 공격 행동을 가한다면 아동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공격적인 보복 행동도 덜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Hartup 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 아동의 친구관계를 좋아하는 정도를 배제하고 친구관계의 존재 유무만 통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즉 친구관계란 좋아하는 아동으로 규정지을 수 있지만 좋아하지만 아직 친구관계를 맺지 않는 아동도 있으므로 친구관계가 아닌 상태를 모두 다 싫어하는 아동으로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공격대상인 갈등 상황에서,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성과 예견 반응

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친구관계(Friendship)와 좋아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좋아하는 정도에 따른 행위자 유형과 같은 상황적 요인들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때 의도적 귀인과 예견 반응을 결정짓는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2개의 대비집단인 친구일때와 비친구, 그리고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격적인 비친구를 아직은 친구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을 잘 지키고 남을 잘 도와 주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친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순위를 지닌 아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대상의 공격성 유무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인 귀인과 예견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 행위자 유형에 따라 아동이 추론하는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인 귀인과 예견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동의 공격성 정도와 친구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친구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 경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 1)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라 의도적 귀인에 차이가 있는가?
- 2)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라 예견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 이론

내적 요인과 환경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론의 입장에서 공격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 사회-인지적 견해는 인간의 내적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공격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즉 아동의 사회 인지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Dodge (1986)는 공격에 대한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각 단계는 해독과정 (decoding process), 해석과정 (interpretation process), 반응탐색과정 (response search process), 반응결정과정 (response decision process) 그리고 부호화과정 (encoding process)으로 이루어진다. Dodge (1986)는 정보처리 모형을 공격성에 적용하여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적 과정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목적, 과정의 자극과 사건 그리고 행동 결과들에 대한 기억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문제 행동이나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내적 인지적 과정에서 한 단계 이상의 결손과 편견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반응결정단계의 결손은 아동의 공격성의 결과예상에 영향을 미친다(배진수, 1985; 김명숙, 1989). Dodge의 모델은 또래로부터 오는 사회적 단서에 직면하게 되면 해독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적절한 단서를 찾지 못하거나 적의성을 띠는 단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그 또래가 적의가 있다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짙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또래로부터 반복적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는 다시 또래가 적의를 품고 있다는 원래의 공격 기대를 강화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Dodge의 모델은 공격적 행동이 일종의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아동이 예상하는 공격 행동 결과는 개인적 경험 및 개인차를 포함한 사회화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어진 공격적 행동과 아동의 인지적 매개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 행동의 갈등 결과예상에 관한 연구는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갈등 결과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 귀인

행동의 원인에 대한 추론과 이해는 관찰자의 대상 인물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고 추정하는 의도에 대한 추론은 아동이 타인을 어떻게 특징짓고 그들의 정서, 사고, 의도, 성격등을 어떻게 추론해 나가는지를 밝히는 사회-인지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데(Heider 1958), 그리고 행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되어 왔다. 어떠한 행동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는 그 행동을 가하는데 개재하는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이때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Bandura, 1973; Berndt, 1975).

의도란 전형적으로 그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과 행위자 역할 지위, 그 당시나 그 이전의 상황에 의하여 추론 될 수 있다(Evans, 와 McCandless, 1978).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귀인을 행위자의 행동 동기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고 추론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Dodge (1980)는 공격적인 아동들이 부적절한 공격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들의 사

회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단서에 대한 왜곡성(Cue - distortion) 가설을 세웠다. 즉 이러한 아동들은 공격자의 의도에 대한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귀인이 옳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킨 또래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과잉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공격성을 계속 보이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진 상태에서 선동자인 또래의 공격 행동 의도가 모호하게 보일 때에도 그 아동에게 적개적인 의도를 잘못 귀인 시키게 되고 따라서 공격적인 보복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 시도되어진 결과 아동의 행동 의도가 분명히 적개적인 조건에서는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 모두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아동의 공격행동 의도가 모호한 조건하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공격적인 아동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비공격적인 아동들은 공격성을 금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공격 행동을 보이는 결과는 이들의 사회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단서에 대한 왜곡성을 시사해 주었다.

3. 갈등 결과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견 반응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의 추론 과정으로 의도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반응결정과정(Dodge, 1986)인 행동반응을 결정 짓게 된다. 앞서도 기술하였듯이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지각하고 추정하는 의도에 대한 추론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Heider, 1985), 그리고 행위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정되어 왔다.

좌절적인 상황은 분노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적대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할 경향성

(predisposition)을 만들어 내지만 이런 반응이 실제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는 공격성을 이끌어내는 적당한 단서(cue)의 존재 유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Berkowitz, 196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 의도의 이해 여부에 따라서 공격성에 대한 단서에 적절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견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또래들의 의도가 모호한 부정적인 상호작용에서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2, 4, 6학년의 반응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Dodge, 1980). 비록 공격적인 아동들이 자신들의 적개적인 감정을 조정하여 의도의 단서들을 통합하는데 실패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비공격적인 아동들과 공격적인 아동들은 부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비의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시켜 더 자주 보복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특히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들은 또래의 의도가 분명치 않거나 모호한 상황에 대처 할 때 그 반응이 달랐다. 즉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반면에 비공격적인 아동들은 보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를 Dodge(1980)는 사회적 귀인과 사회적 행동 반응은 서로 영향을 주고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그 이후의 또래에게 반응하게 되는 행동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다.

모호한 상황에서 적개적인 의도로 추론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아동들은 또래의 의심스러운 점을 너그럽게 해석해 주는 아동들 보다도 또래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불신을 받게 될 것 같다.

Nasby, Hayden. 그리고 Depaulo(1979)에 의하면 인지 이론가(Bewers, 1973; Harvey, 와 Schroder, 1961; Kelley, 1955; Mancuso, 1970; Mischel, 1973; Schroder, 와 Suedfeld, 1972)들은

자극 그 자체 보다는 지각되는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력 평가가 단서의 성격(Cue property)을 결정짓고 그에 준하여 적절한 반응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였다(양은주, 1985). 즉, 좌절적인 사회적 자극은 아동이 오직 자극을 주는 사람에 대하여 적대적인 의도로 귀인할 때만 공격반응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Dodge, 와 Frame, 1982; Berkowitz, 1977). 부정적인 자극에 대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 중에서 그와 같은 자극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격적인 반응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즉, 혐오적인 자극인 부정적 결과 자체가 공격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평가 기대 상호관계 등 인지적요인과 인지과정의 개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1개의 공립 국민학교에서 5학년(11세) 전체 8개 학급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아동수는 5학년 436명(남 219명 여 217명)중 대상 선정 방법인 친구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공격적인 남자 아동(40명)과 비공격적인 남자 아동(38명) 총 78명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으로 남자 아동만이 선정된 이유는 신체의적인 공격자로 남자 아동만이 지명받아 공격적인 아동이 모두 남자 아동이므로 성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격적인 아동도 모두 남자 아동으로만 선별하였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측정도구

아동의 공격성 측정 방법은 Dodge 와 Somberg (1987)가 제작한 친구가 평가하는 또래 지명과 개인 선호점수, 그리고 교사가 평가하는 교사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사회 측정적 지위를 평가하기 위한 또래 지명은 '학급에서 친한 아동을 있는대로 기록'하게 하며 '때리거나 먼저 싸움을 거는 아동' 3명을 기록하게 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동' 3명을 기록하게 하며 '남을 도와주거나 함께 일하는 아동' 3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급의 아동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5점척도 평가범주에서 평가하도록 하여 각 아동에 대한 개인 선호점수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개인 선호척도는 다음과 같다. 1점 좋아하지 않는다. 2점 조금 좋아한다. 3점 꽤 좋아한다. 4점 매우 좋아하지만 친한 친구는 아니다. 5점 매우 많이 좋아해서 친한 친구이다. 그리고 교사용 질문지는 "또래 관계에 대한 교사 평가 리스트"로서 사회적 역량 척도에 관한 6문항과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으며, 이는 1점 전혀 맞지 않다. 2점 맞지 않다. 3점 보통. 4점 맞다. 5점 항상 맞다로 구성하였다.

점수화 방법으로 또래지명 점수는 그 학급에서 각 아동이 지명된 빈도로 계산 되며, 개인 선호 점수는 4-5점으로 지명된 빈도 횟수에서 1점으로 지명된 빈도 횟수를 빼서 계산되어진다. 그리고 교사용 질문지중에서 사회적 역량 점수(22점)는 1, 2, 4, 5, 번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록 3, 6번은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수록 또래와 친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고 하여

사회적 역량이 높은 아동으로 구분하였고, 공격성 점수는(25점)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개인 선호 점수가 하위점수이며, 교사용 질문지에서 사회적 역량 점수도 하위점수이면서, 공격성 점수만 상위점수를 취득하였으면 우선 잠재적인 공격적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개인적 선호 점수를 상위점수 취득하였으며 교사용 질문지에서 사회적 역량 점수 또는 상위 점수를 받았으며, 공격성 점수만 하위점수를 취득하였으면 우선 잠재적 비공격적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모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리거나 먼저 싸움을 건다는’ 또래 지명에서 20회 이상 지명된 아동 40명과 또 ‘때리거나 먼저 싸움을 건다는’ 또래지명에서 거의 지명받지 않는 아동 40명을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비공격적인 아동 2명이 학교 행사 관계로 불참하여 38명만이 비공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갈등 결과예상 반응 측정도구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의도적 귀인과 예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Dodge (1980), Dodge 와 Frame (1982)이 제작한 가상적인 갈등상황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개인 면접으로 실시되었으며, 공에 맞았을때, 옷에 우유가 었질러졌을때, 치기 술래 놀이를 할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이야기는 공격대상이 자신이며 행위자가 친구인 상황에서 행위자(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

각하니?라는 행위자(친구)의 의도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또 공격대상(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예견 반응을 질문하였다. 두번째 이야기는 공격 대상이 자신이며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인 상황에서, 세번째 이야기는 공격대상이 자신이며 행위자가 비공격적인 비친구인 상황에서 행위자의 의도와 공격대상의 예견 반응을 질문하였다.

각각의 이야기는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 귀인을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행위자의 행동을 적개적이며 부정적인 의도를 귀인하였으면 1점, 중립적인 의도로 귀인하였으면 2점, 자비롭고 호의적인 의도로 귀인하였다면 3점을 주었다. 그리고 갈등 결과대상인 예견 반응에 따라서도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이야기는 공격대상이 자신이므로 자신의 공격행동 반응에 대한 예견에 따라 공격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으면 1점, 중립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으면 2점, 호의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으면 3점을 주었다. 각 이야기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호의적인 의도와 호의적인 반응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적개적인 의도와 공격적인 반응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점된 의도적 귀인과 예견 반응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측정도구로 사용된 이야기내에는 한 아동 (Target)이 다른 아동(Actor)에 의해 의도가 모호한 행동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즉 공격대상(Target)은 자신이지만, 행위자(Actor)는 친구, 공격적인 비친구, 비공격적인 비친구로 범주화시켜 그 행동에 대한 의도와 자신의 공격 반응에 대한 예견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세 개의 이야기내에 공격대상과 행위자 쌍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표 1〉 의도적 귀인의 범주

귀 인	내 용
부정적이며 적개적인 귀인	고의로, 일부로, 장난하기 위해,
중립적인 귀인	우연히, 다른사람이 시켜서,
호의적인 귀인	실수로, 모르고 잘못해서,

〈표 2〉 예견 반응의 범주

반 응	내 용
공격적인 반응	뒤에서 때리거나 고자질, 화내거나 악쓰
중립적인 반응	그냥간다, 잊어버린다.
호의적 반응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충고, 친하게 지냄

공격대상 (Target) —— 행위자 (Actor)

1. 자 신 —— 친 구
2. 자 신 —— 공격적인 비친구
3. 자 신 —— 비공격적인 비친구

이야기내에 친구로 선택되는 아동은 연구대상 에 의해 친한 친구로 선택되어지며, 개인 선호점 수에서 적어도 4점을 받은 아동이다. 공격적인 비친구로 선택되는 아동은 연구대상 에 의해 친한 친구로 지명받지 못하고, 공격적인 아동이라고 지명된 아동으로 개인 선호 점수에서 대부분 1점 을 받은 아동이다. 비공격적인 비친구는 연구대 상에 의해 친한 친구로 지명받지 못하고, 공격적 인 아동이라는 또래지명에서도 낮은점수를 받은 아동으로 규칙을 잘 지키는 아동이나 남을 도와 주는 아동으로 지명받은 아동이다.

3. 연구절차

조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4명의 보조 연구원 과 함께 조사 대상 국민학교에서 개인 면접으로 방과 후에 실시하였다. 면접의 진행은 공격대상 과 행위자 쌍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행위자의 의

도에 대한 귀인과 공격대상의 반응을 이끌어냈 다.

면접자는 본 조사 실시 하루전에 조사의 실시 요강, 유의사항, 검사의 실습에 대한 훈련을 받 았다.

특히 공격대상과 행위자 쌍이 이야기별로 잘 배치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면접자는 연구대상이 공격적인 아동인지 비 공격적인 아동인지를 자각하여야 하며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는 이런 사건들이 가상적인 상황이라 고 인지시킨후 면접을 끝내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라 아동의 갈등 결과예상에 대한 의도적 귀인과 예견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2(아동의 공격성)×2(행위자 유형)의 반복 측정 변향분석과 단순 주효과 검증 을 하였다.

특히 공격대상이 자신인 갈등상황에서 행위자 유형에 초점을 두고 친구와 비친구, 그리고 공격 적인 비친구와 비공격적인 비친구로 비교한 것은

공격대상과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므로 세 개의 이야기중에서 먼저 첫번째 이야기와 두번째, 세번째 이야기로 나누고, 다음은 두번째 이야기와 세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자료 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갈등 결과 예상의 의도적 귀인

공격 대상이 자신인 갈등 상황에서 행위자를 친구와 비친구와 공격적인 비친구와 비공격적인 비친구로 비교한 것은 공격 대상과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관계의 영향력을 알아 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가 친구일때와 비친구일때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 귀인에 대한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26)=23.20, p<.001$), 행위자 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행위자의 행동을 적개적인 의도로 귀인하였다. 행위자가 친구일때와 비친구일때는 의도적 귀인 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공격을 당했을 때,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행위자가 친구이든지 비친구이든지를 개의치 않고 그들 행동에 대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이 공격대상인 갈등상황에서 의도가 모호한 행동에 대해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

<표 3>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친구 일때와 비친구일때 의도적 귀인점수

행위자	공격대상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 체
친구	1.95(1.01)	2.76(0.63)	2.35
비친구	1.96(1.00)	2.42(0.91)	2.19
전 체	1.95	2.59	4.54

<표 4>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친구 일때와 비친구일때 의도적 귀인의 변량 분석표

SOURCES	df	ss	Ms	F
집단간				
공격 대상(A)	1	15.11	15.11	23.20***
오차(1)	76	49.49	0.65	
집단내				
행위자 유형(B)	1	1.16	1.16	2.25
A×B	1	1.41	1.41	2.73
오차(2)	76	39.54	0.52	

*** $p<.001$

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의도적 귀인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76)=8.07, p<.01$), 행위자 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행위자 행동에 대해 더 적개적인 의도로 귀인하였으며, 행위자가 공격적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는 의도적 귀인 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의도가 모호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공격을 당했을 때,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공격적인 비친구가 행동했거나 비공격적인 비친구가 행동했거나를 개의치 않고 그들 행동에 대해 고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표 5〉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공격적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 비친구일때의 도적 귀인점수

행위자	공격대상 아동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 체
공격적인 비친구	1.90(1.01)	2.21(0.99)		2.05
비공격적인 비친구	2.02(1.00)	2.63(0.83)		2.32
전 체	1.96	2.42		4.37

〈표 6〉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공격적 비친구 일때와 비공격적 비친구일때 의도적 귀인의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집단간				
공격 대상(A)	1	7.28	7.28	8.07**
오차(1)	76	68.54	0.90	
집단내				
행위자 유형(B)	1	0.51	0.51	0.55
A×B	1	2.37	2.37	2.52
오차(2)	76	71.60	0.94	

** p<.01

2. 갈등 결과예상의 예견 반응

먼저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가 친구일때와 비친구일때 갈등 결과예상인 예견 반응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1.76)=10.23, p<.01), 행위자 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1.76)=13.77, p<.001).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더 공격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으며, 행위자가 친구일때보다 비친구일때 자신의 행동을 공격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다. 이것은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자신이 공격을 당했을 때, 비공격적인 아동

〈표 7〉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친구 일때와 비친구일때 예견 반응점수

행위자	공격대상 아동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 체
친구	2.25(0.93)	2.76(0.63)		2.50
비친구	1.95(0.92)	2.28(0.81)		2.11
전 체	2.10	2.52		4.61

〈표 8〉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친구 일때와 비친구일때 예견 반응의 변량 분석표

SOURCES	df	ss	Ms	F
집단간				
공격 대상(A)	1	7.30	7.30	10.23**
오차(1)	76	54.24	0.71	
집단내				
행위자 유형(B)	1	5.57	5.57	13.77***
A×B	1	0.25	0.25	
오차(2)	76	30.79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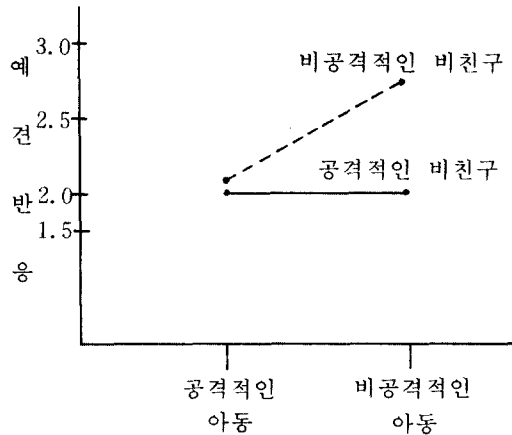
** p<.01 *** p<.001

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의 반응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견하였고 또한 행위자가 친구일때보다 비친구일때가 자신이 공격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아동이 비친구가 행동할때 자신의 반응에 대해 공격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예견 반응 점수에 대한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위자 유형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76)=7.29, p < .001$).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1,76)=7.29, p < .01$).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공격적인 비친구가 행위자일때 보다 공격적인 비친구가 행위자 일때 자신의 반응행동을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예견하였다. 이것은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아동은 비공격적인 비친구가 행동할때 보다 공격적인 비친구가 행동할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자신이 공격대상인 갈등상황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는 비공격적인 아동일경우에만 행위자가 비공격적인 비친구보다 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자신의 반응행동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나, 공격적인 아동일 경우에는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이든지 비공격적인 비친구이든지간에 자신의 반응 예견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논 의



<그림 1>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예견반응의 상호작용 형태

<표 9>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공격적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 비친구일때 예견반응 점수

행위자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체
공격적인 비친구	1.85(0.92)	1.86(0.99)	1.85
비공격적인 비친구	2.05(0.93)	2.76(0.64)	2.40
전체	1.95	2.31	4.25

본 연구는 아동의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 귀인과 예견 반응이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인 변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유형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 귀인의 결과는 친구, 공격적인 비친구, 비공격적인 비친구가 행위자들이 자신에게 공격 행동을 할 때는 공격적인 아동은

〈표 10〉 공격대상의 공격성 정도와 행위자가 공격적 비친구 일때와 비공격적 비친구일때 예상반응의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집단간				
공격 대상(A)	1	4.84	4.84	5.02
오차(1)	76	73.33		
집단내				
행위자 유형(B)	1	10.77	10.77	18.05***
A×B	1	4.35	4.35	7.29*
오차(2)	76	45.37		

* $p < .05$ ** $p < .001$

행위자와의 관계를 개의치 않고 그들의 행동을 고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공격대상인 갈등상황에서 행위자가 친구, 공격적인 비친구, 비공격적인 비친구인 행위자 유형을 개의치 않고,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그들의 행동을 고의로 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는 Hartup 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동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사회인지가 왜곡되어서 적개적인 귀인이 옳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킨 또래에게 적개적인 의도로 귀인한다는 단서에 대한 왜곡성(Dodge, 1980)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인 예견 반응에 대한 결과는 행위자 유형이 친구일때와 비친구일때, 그리고 공격적인 비친구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가 친구일때와 비

친구일때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인 예견 반응의 결과는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의 대응반응을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고, 행위자가 친구일때보다 비친구일때 자신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와 반대로 행위자가 친구이며 비공격적인 아동일때는 자신의 행동반응이 비교적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의 예견 반응의 결과는 의도가 모호한 갈등상황에서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자신의 반응이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와 반대로 행위자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는 자신의 반응행동이 거의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에도 예견 반응점수에 차이가 나타난 Hartup 과 그의 동료들의(1989)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예견 반응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신이 공격을 당했을 때 행위자가 좋아하지 않은 아동이며 좋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친구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므로 모두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부류의 아동 사이의 예견 반응 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논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적개적인 의도로 추론하여 공격적인 반응으로 행동하는 아동들의 사회적 귀인과 사회적 행동반응은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기대, 상호작용의 관계등이 인지적 요인과 인지과정에서 개입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격 반응을 나타낸다고한 Dodge 와 Frame (1982)과 Ber-

kowitz (1977)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공격적인 아동의 보복이라는 단서 때문에 비공격적인 아동의 행동과 공격적인 아동의 행동반응을 예견하는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 유형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친구, 공격적인 친구, 공격적인 비친구일때 모두 예견 반응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Hartup 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Hartup 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에 좋아하는 정도를 배제하고 친구관계의 존재 유무만 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공격적인 비친구를 친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아동으로서 친구관계를 맺고 싶지만 아직은 호감만을 갖고 있으며 규칙도 잘 지키고 남을 잘 도와 주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친구관계와 좋아하는 정도를 함께 고려한 본 연구결과는 행위자 유형에 따라서도 예견 반응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갈등 결과 예상인 의도적 귀인과 예견 반응에 따른 결과들은 개인적인 변인인 아동의 공격성에 뿐만 아니라 상황적 변인인 행위자 유형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라 갈등 결과예상인 의도적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에서만 의도적 귀인점수에 차이가 나타나서,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행위자 행동을 더 고의적인 의도로 귀인하였다. 그러나 행위자에 따른 의도적 귀인점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에 따라 갈등 결과예상인 예견 반응은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 자유형 모두에 예견 반응점수가 차이

를 나타내 비공격적인 아동보다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의 반응행동에 대해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으며, 친구일때보다 비친구일 때 자신의 반응 행동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리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일때와 비공격적인 비친구일때는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예견 반응 점수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행위자 유형에 따른 예견 반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비공격적인 비친구가 행위자일때 보다 공격적인 비친구가 행위자일때 자신의 반응행동이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것은 상호 작용 효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공격적인 아동인 경우에만 존재하는 차이로 행위자가 비공격적인 비친구보다 공격적인 비친구일때 자신의 반응행동이 더 공격적일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공격적인 아동은 행위자가 공격적인 비친구이든지 비공격적인 비친구이든지간에 자신의 반응 예견 점수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공격적인 아동의 적개적인 성향이 보복적인 공격성으로 나타날때 개인차와 같은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점과 친구관계와 좋아하는 정도를 행위자 유형에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 및 행위자 유형과 같은 상황적 변인에 따른 갈등 결과예상에 차이를 밝혀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며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에 따른 의도성에 대한 귀인과 예견 반응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 결과예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상황적 요인에 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명숙 (1989). 아동의 공격 행동 따른 결과 예상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경 (1985). 정보 사용을 통한 아동의 귀인 과정 발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오 · 김태련 (1981). 아동의 사회인지에서 귀인 과정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제 3권 2호, 100-117.
- 배진수 (1985).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분석, 진주교육대학 논문집, 29, 147-171.
- 양은주 (1985). 상대방의 공격적인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의 아동의 공격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 Hall
- Berkowitz, L. (1964). Aggression cues in aggressive behavior and hostility catharsis. Psychological Review, 71, 104 - 122.
- Berndt, T. J. & Berndt, E. G. (1975)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46, 904 - 912.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 - 170.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 - 635.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 - 224.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 - 1600
- Hel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iggins, E. T., Ruble, D. N. & Hartup, W. W. (198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In W. W. Hartup, J. E. Brady, & A. F. Newcomb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childh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y, H. H., & Michela, J. L. (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1, 457 - 501.
- Nasby, W., Hayden, B. & Depaulo, B. M. (1979). Attributional bias among aggressive boys to interpret unambiguous social stimuli as displays of hosti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459 - 468.
- Perry, D. G., Perry, L. C. & Weiss, R. J. (1989). Sex differences in the consequences that children anticipate fo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12 - 319.
- Sancilio, M. F. M., Plumert, J. M. & Hartup, W. W. (1989). Friendship and aggressiveness as determinations of conflict outcome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12 - 319.

- tal Psychology, 25, 812 - 819.
- Shantz, C. U. (1987). Conflicts betwe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283 - 305.
- Shultz, T. R. (1975). Development of schemes for the attribution of multiple Psychological causes. Developmental Psychology, 11, 502 - 510.
- Steinberg, M. S. & Dodge, K. A. (1983). Attributional bias in aggressive adolescent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 312 - 321.
- Taylor, S. P. & Epstein, S. (1967). Aggression as a function of interaction of the sex of the aggressor and the sex of the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35, 474 - 486.